

十二經脈의 遍診法을 통한 經脈과 脈診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홍광석*, 윤중화**

*. **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大韓醫療氣功學會

I. 緒論

최근 <<素問>> <<靈樞>>의 先秦의 醫學을 내용을 살필 수 있는 <<足臂十一脈灸經>> (이후 <<足臂>>으로 稱함), <<陰陽十一脈灸經>> (이후 <<陰陽>>으로 稱함)의 經脈, <<脈法>> <<陰陽脈死候>>의 診斷, <<導引圖>>, <<却穀食氣>>의 氣功 導引,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의 藥物, <<合陰陽>>의 性등에 關한 十四種의 醫籍이 馬王堆의 漢代 古墳群에서 出土되었다¹⁾.

<<脈法>>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陰陽脈死候>> <<五十二病方>>은 같은 帛書에 기록되어 있고, <<脈法>>은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뒤 <<陰陽脈死候>>의 앞에 있어 經脈의 異常病候를 診斷하는 方法과 聯關이 있음을 類推할 수 있다²⁾.

<<陰陽>>에는 “是僮則病”의 文句 뒤에 病症이 記述되어 있고, <<脈法>>에는 比較 診斷의 方法이 있으며,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에 脈이 搏動하

는 곳이 있고, <<靈樞·經脈³⁾>> “不與衆動, 是以知其何脈之病也” 하여 各 經脈의 比較 脈診法을 運用하였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⁴⁾>>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 하여 經脈에는 動脈處⁴⁾가 있음을 推斷할 수 있다.

十二經脈의 各 經脈의 動脈診(以後 十二經脈脈診으로 稱함)은 中國의 古書籍에는 脈診名이 없고, 先秦時代의 醫學文獻인 <<陰陽>> <<脈法>>, 秦 兩漢時代의 文獻인 <<素問·三部九候論>> <<靈樞·經脈>> 등의 <<內經>>, 西漢時代의 著作인 <<難經>> 및 唐代의 <<千金翼方>>등의 古醫籍을 通하여 類推할 수 있다.

<<脈法>>에는 脈象을 살펴 盈, 虛, 滑, 澁, 動, 靜으로 區分 및 灸와 砭의 治療法이 있고¹⁾, <<素問·邪氣藏府病形>>에는 五臟脈의 大, 小, 緩, 急, 滑, 澁에 따른 症狀이 記述되어 있고, <<靈樞·九針十二原>>에는 九針의 種類와 效能 및 各 經脈의 動脈處와 類似한 五臟六腑의 原穴이 있고, <<靈樞·本輸>>에는 十二經의 各 經脈에 井榮輸經合의 五輸穴이 記載되어 있다³⁾.

이에 論者는 <<脈法>>의 各 經脈의 動脈診과 灸와 砭의 治療法의 蓄積된 醫學知識

의 기록으로 보이는 <<素問·大奇論>> <<素問·邪氣藏府病形>> 과 <<脉法>>의 灸, 砭의 治療法이 針治療로 變化하여 <<靈樞·本臟>>의 各各의 經脈에 五輸穴이 配置되는 淵源을 推論하면 鍼灸治療와 脈診의 關係를 把握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十二經脈脈診에 關하여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II. 本論

1. 十二經脈의 遍診法

1) 十二經脈의 遍診法 起源

十二經脈脈診은 中國의 古書籍에는 없으며 先秦時代의 醫學文獻인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秦 兩漢時代의 文獻인 <<素問·三部九候論>> <<靈樞·經脈>> 등의 <<內經>>, 西漢時代의 著作인 <<難經>> 및 唐代의 <<千金翼方>>등의 古醫籍을 通하여 推論할 수 있다.

馬王堆 漢墓 (B.C 168년)의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의 灸經, <<脈法>> 및 <<陰陽脈死候>>는 現存하는 經脈, 經脈脈診, 治療 및 豫後에 關한 最初의 專門書籍이며, 診脈의 目的, 部位, 方法 및 脈象과 疾病의 關係 등을 論述하고 있다.

古代의 脈診方法들을 聚合하여 獨取寸口說을 立論한 <<難經·一難>>에서 “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脈에는 各 經脈을 按診할 수 있는 動脈處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⁶⁾⁷⁾, 唐代의 <<難經集注⁸⁾>>, 元代의 <<難經本義⁹⁾>>, 清代의 <<難經洄注箋正¹⁰⁾>> 등의 <<難經>> 註釋書에 약간의 差異는 있지만 十二經脈의 動脈處가 記載되어 있고, <<針灸甲乙經>> <<銅人臉穴針灸圖經>> <<醫宗金

監·刺灸心法要訣>>등의 針灸書籍에 “動脈應手” 하는 經穴이 記錄되어 있다.

十二經脈의 發見初期에는 經脈의 概念과 脈診의 脈의 概念이 混再되어 있었고, 各 經脈의 走行을 觸診하여 搏動을 확인하는 過程에서 十二經脈脈診이 由來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北宋의 丁⁸⁾은 “手足의 三陰三陽의 十二經脈은 天地의 陰陽이 通하고 人體의 氣血을 運行하여 十二經의 動脈處에서 百病을 診斷하고 生死를 鑑別할 수 있다” 하였다.

그리고 <<陰陽>>의 “…… 是僮則病……”, <<靈樞·經脈3)>> “脈之卒然動者, 皆邪氣居之” 과 “是動則病”의 句節, <<脈法>>의 脈診法 및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에서 十二經脈脈診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十二經脈 遍診法의 延變.

<<脈法>>의 “相脈” 즉 比較脈診의 方法 및 治療法은 十二經脈의 各 診脈處의 搏動力으로 各各의 經脈의 盛衰를 살피는 過程에서 萌芽하였다고 생각되며, <<靈樞·經脈>> “不與衆動, 是以知其何脈之病也” 와 <<靈樞·動臉>> “黃帝曰, 經脈十二, 而手太陰, 足少陰, 陽明獨動不休, 何也?”의 文句는 <<脈法>> 十二經脈의 比較脈診을 <<內經>>의 著作時期에도 運用한 것을 推論할 수 있다. 그리고 王¹¹⁾은 “<<內經>>의 成書前 혹은 成書後에 比較的 盛行한 診斷法으로 一個의 學派가 形成되어 있었다” 하였다.

翟¹¹⁾은 “<<內經>>에는 寸口에 明確한 臟腑配屬이 없었다. 이는 肝脈, 心脈 등의 十二經脈의 各各의 經脈을 診察할 수 있는 部位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素問·大奇論¹²⁾>>에는 奇病의 診斷을 心脈, 肝脈, 腎脈, 肺脈, 脾脈의 大, 小, 緩, 急,

滑, 澁, 結에 따른 各種病症을 詳細히 論述하고 있고, 또 五臟脈의 表現과 病症외에 “三陽急爲瘕, 三陰急爲疝, 二陰急爲癩厥, 二陽急爲惊” 하여 太陽, 太陰, 少陰, 陽明의 弦急에 따른 各種病症과 <<素問·病能論>> “有病怒狂者 …… 陽明者常動, 巨陽 少陽不動, 不動而動大疾, 此其候也” 하여 張¹³⁾은 “正常的인 狀況에서 太陽의 委中, 崑崙, 少陽의 聽會, 懸鐘등의 搏動은 미세하며 갑자기 甚하게 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였다. 또 <<素問·病能論>> “人病胃脘癰者, 診斷何如? …… 當候胃脈 人迎者, 胃脈也” 하고 <<素問·平人氣象論>> “胃之大絡虛里 …… 其動應衣, 脈宗氣也” 하여 陽明經의 胃經은 人迎穴에서 胃氣를 診候하고, 虛里에서 胃腑에서 所生하는 宗氣를 診斷할 수 있다.

그리고 王은 “十二經脈의 搏動處에서 本經 및 絡脈의 所屬의 臟腑의 病變을 反映하는 局部的 觀察法은 全面的인 觀察의 整體的인 診察方法으로 進行되었다” 하였고, 十二經脈의 動脈處에서 脈搏의 遲數, 脈體의 大小 및 脈의 流動등의 情況이 綜合되어 <<靈樞·邪氣藏府病形>>에 五臟脈의 急甚, 急緩, 緩甚, 微緩, 大甚, 微大, 小甚, 微小, 滑甚, 微滑, 澁甚, 微澁등의 各種의 症狀이 詳細히 描寫되어 있다.

그리고 王¹¹⁾은 “十二經脈脈診의 理論과 臨床運用은 <<內經>>의 成書時期的 前後에 長時間 運用된 方法이며 十二經脈脈診을 利用한 學派의 論文이 滙篇되어 <<內經>>에 遍在되어 있다” 하였다. 또 王¹¹⁾은 “十二經脈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的으로 同時代거나 十二經脈脈診이 조금 앞선 것이다” 하였다.

近代의 張¹⁰⁾은 “淺部の 動脈處는 ‘捫而可得’ 하면 頭額 項, 顛, 肩, 背, 臂, 頸, 手

十二經	呂 廣	楊 玄 操	滑 壽
足太陽	委中	委中	委中
足少陽	耳前	下關, 懸鐘	下關, 聽會
足陽明	趺上	衝陽, 人迎, 大迎	衝陽, 人迎, 大迎, 氣衝
手太陽	目外眦	瞳子膠	天窗
手少陽	客主人	客主人, 聽會	和膠
手陽明	口邊, 陽溪	地倉	合谷, 陽溪
足厥陰	人迎	面骨(回骨)	太衝, 五里, 陰廉
足少陰	內踝下	內踝上五寸間	太溪, 陰谷
足太陰	髀上	箕門	箕門, 衝門
手少陰	掖下	極泉, 靈道, 少海	極天
手心主	勞宮	勞宮	勞宮
手太陰	太淵	太淵, 尺澤, 俠白, 天府	中府, 雲門, 天府, 俠白

(표 1) 十二經脈의 動脈部位

指, 足跗 및 足趾間에서 觸知할 수 있다” 하였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⁴⁾>>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脈에는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推斷할 수 있다. <<難經>>以後의 <<針灸甲乙經>> <<千金方>> <<銅人腧穴針灸圖經>>등에 記載된 十二經脈의 經穴에 “動脈應手”의 部位는 差異는 있지만 <<難經>>의 注家들인 呂廣, 楊玄操, 滑壽등이 언급한 動脈의 搏動處이며, 張¹⁰⁾은 “動脈은 無時無動하고 古人들이 言及한 動脈處는 모두 肌肉의 淺表에 있는 動脈의 按診處들은 聯關關係가 없으므로 古醫籍의 動脈處의 差異를 穿鑿할 理由가 없다” 하였다.

十二經脈의 動脈 搏動處를 比較하는 脈診法은 煩雜하여 다른 經脈脈診의 方法이 考案되어 臨床에 運用되자 醫家들의 利用度는

적었다. 그러나 <<靈樞·動脈>> “黃帝曰, 經脈十二, 而手太陰, 足少陰, 陽明獨動不休, 何也?” 하여 十二經脈의 動脈診 中에서 診斷의 意義性和 搏動을 쉽게 觸知할 수 있는 胃氣의 機能과 聯關된 手太陰의 氣口脈, 足陽明의 人迎脈, 跗陽脈 및 命門의 機能을 按診하는 足少陰의 太溪脈 등은 <<傷寒論>> <<金匱要略>> <<脉經>> 등의 古醫籍에 記載되어 있다.

한편, 葉¹⁴⁾은 “身體의 動脈處는 <<明堂針灸圖>> <<甲乙經>> 등의 醫籍에는 20 餘穴이 있으며 10 餘穴만이 診脈에 利用되었고 10 餘穴중에 足脈의 太溪 衝陽 太衝이 重要하다” 하였고, 徐¹⁵⁾는 “手太陰의 太淵, 足陽明의 人迎, 足少陰의 太溪의 動脈등 3곳 以外的 十二經脈의 動脈處는 단지 經穴의 眞僞를 살피는 取穴法으로 利用되고 있다” 하였다.

Ⅲ. 考察

韓醫學에 運用되는 脈診法은 <<難經>>에서 確立된 寸口脈의 寸關尺의 六腑定位脈診法(이후 ‘氣口脈’으로 稱함)이며, <<素問>>에는 寸口診, 三部九候診등의 脈診法이 있고, <<靈樞>>에는 人迎寸口診, 尺膚診등이 있고, <<難經>>에는 獨取寸口說 以外에 輕重法, 六十數, 五十動, 至數法 등의 古代의 여러 脈診法이 記載되어 있다¹⁶⁾.

先秦에서는 馬王堆의 <<足臂>> <<陰陽>>의 經脈病候에는 <<脉法>>의 脈診 方法과 灸 및 砭法으로 治療할 수 있으며, <<足臂>> <<陰陽>>의 經脈 路線에서 臟腑와 連繫는 <<足臂>>의 手太陰脈의 “至心”, 足少陰脈의 “出肝”과 <<陰陽>>의 手太陰脈의 “入心中”, 足太陰脈의 “和胃脈也”, 足少陰脈의

“系于腎”의 五脈에 지나지 않고 心, 肝, 胃, 腎의 四臟外에 連繫가 없다¹⁾.

向¹⁶⁾은 “<<內經>>의 經脈의 體系에는 <<靈樞·本脈>>(이후 <<本脈>>으로 稱함)의 向心性路線의 原氣路線과 <<靈樞·經脈>>(이후 <<經脈>>으로 稱함)의 半向心性半遠心性의 營氣路線의 循環路線의 두 가지 傳本 系統이 있다” 하였고, 또 “馬王堆의 <<足臂¹⁸⁾>>는 <<本脈>>의 向心性의 五輸穴路線으로 延變하고 <<陰陽¹⁹⁾>>은 <<經脈>>으로 延變하였다” 하였다.

診斷法에 있어 <<脉法>>의 脈診의 方法중 十二經脈의 各各의 動脈診의 盈, 虛, 滑, 澁, 動, 靜의 脉象을 區分하는 診斷法은 <<素問·邪氣藏府病形>>의 大, 小, 緩, 急, 滑, 澁에 따른 大甚 大微의 區分으로 臟腑病의 診斷에 擴大 運用하였고, <<經脈>>에서는 經脈病候의 傳統과 表裏經의 一陰一陽論에서 少陽 太陽 陽明의 三陽經과 厥陰 少陰 太陰의 三陰經의 三陰三陽論으로 發展되어 陰陽의 相對的인 量으로 疾病의 經脈을 診斷할 수 있는 人迎寸口診을 創案하여 運用하였다고 思料된다.

治療法에 있어 <<足臂>>의 十一脈의 流注路線이 手의 腕關節, 足의 踝關節附近에서 手足三陰三陽의 十一脈이 起始하고, <<脉法>>에는 各 經脈의 疾病의 治療는 各 經脈이 起始하는 下端의 動脈處 및 肘, 膝關節의 血管을 切開하여 出血하여 下氣시키는 方法을 利用하였고, <<足臂>>의 向心性路線을 堅持한 醫家들은 <<邪氣藏府病形>>의 五臟脈의 大, 小, 緩, 急, 滑, 澁의 甚 微의 區分되어 臟腑病의 診斷과 經脈과 臟腑의 連繫가 具備되는 <<本脈>>의 五輸穴을 利用하여 自經의 疾患을 九針으로 治療하였다.

論者는 <<靈樞·背脈>>의 五臟의 背脈穴과 募穴의 開發을 促進하는 契機가 되었다

고 생각된다. 또 六腑疾患의 生理 病理 및 治療에 對하여 “小腸大腸皆屬于胃” 하여 消化器系統 (Gastro-intestinal Tract ; 食道 胃 小腸 大腸의 <<傷寒論>>의 陽明病의 通降하는 治療法에 該當하는 認識) 의 認識 變化로 六腑下合穴의 創案하여 六腑의 經脈病과 內部的 臟器病을 區分하여 <<本脈>>의 六陽經의 五輸穴을 同時에 運用하였다고 史料되며, <<脈法>>의 彈蹠診法은 肝 心 脾 肺 腎의 神五臟과 胃 小腸 大腸 膀胱의 形臟四의 九臟의 生理體系를 堅持한 醫家들이 <<素問·三部九候論>>의 三部九候診에서 血管의 彈力度를 測定하여 刺絡療法의 大量出血의 危險性과 生死를 診斷하는 方法으로 運用하였다고 史料된다.

以上에서 보면 <<足臂>> <<陰陽>>의 路線과 經脈病候 및 <<脈法>>의 十二經脈의 比較 脈診法과 治療方法의 延變을 보면 馬王堆에서 出土된 醫書는 <<內經>>의 祖本이 되며 經脈病候의 診斷 및 針灸를 利用한 治療法과 脈診의 淵源은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그리고 <<靈樞·九針十二原>> “凡用針者 必有診脈” 하여 針灸의 治療는 脈診으로 氣의 虛實을 살피 診斷하고, <<靈樞·寒熱病>> “方病之時其脈盛, 盛則瀉之, 虛則補之” 하여 疾病은 脈의 盛衰에 따라 補瀉의 方法을 決定하고, <<靈樞·邪氣藏府病形>>에는 脈象에 따른 刺針의 理致와 方法이 있고, <<靈樞·經脈>> “虛則補之 實則瀉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와 <<靈樞·壽夭剛柔>> “久痺不去身者, 視其血絡, 盡出其血” 의 “苑陳除之24)” 의 條文은 先秦의 灸 刺絡療法에서 漢代의 針 療法까지 脈診을 通하여 蓄積되고 體系화된 治法의 總剛으로 史料된다.

IV. 結論

遍身診의 十二經脈의 動脈處를 按診하는 十二經脈의 遍診法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十二經脈의 遍診法은 經脈의 發見과 形成의 初期에 經脈循診의 過程 中에서 經脈의 走行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萌芽한 概念의 脈診方法으로 생각된다.

2) <<陰陽十一脈灸經>>의 各各의 經脈은 “是僅則病”의 文句가 있으며, <<難經·一難>>에서 “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難經洵注箋正>>에서 “各 經脈 搏動의 診脈處는 本經의 寒熱虛實을 살필 수 있다.” 하였고, <<脈法>>에는 比較脈診의 기록인 “相脈”의 方法으로 診斷하여 “啓脈”의 刺絡, 灸 등으로 治療方法하는 診斷法으로 運用되었다.

3) 十二經脈의 遍脈診은 煩雜하여 間斷하고 臨床에 有用한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脈診 등을 運用하게 되었고, 診斷의 意義와 觸知가 쉬운 胃氣의 機能과 聯關된 手太陰의 氣口脈, 足陽明의 人迎脈, 跗陽脈 및 命門의 機能을 按診하는 足少陰의 太溪脈을 除外한 나머지 動脈處는 “動脈應手”의 取穴法으로 利用되었다

V. 參考文獻

1. 馬繼興. 馬王堆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1-5. 101-102. 104-109.

- 274-303.
2. 金南一. 印昌植 공역, 고대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 法仁文化社. 2000: 54-55.
 3. 河北中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2: 264-265. 16-29. 33-65. 93-118.
 4. 李景營. 千金翼方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8 : 385.
 5.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 41.
 6.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 295-307.
 7.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79 : 58-59.
 8. 王九思. 難經集注. 台北 : 臺灣中華書局. 1985: 5-10.
 9. 滑壽. 難經本義.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1-4.
 10. 張山雷. 張山雷醫集·難經洄注箋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57.
 11.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 北京出版社. 1997 : 1328-1329.
 1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上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2 : 622-637. 596-606.
 13. 張介賓. 張氏類經·上冊. 서울 : 一中社. 1992: 553.
 14.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
 15.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16. 黃世林·孫明異. 中醫脈象研究.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6: 1.
 17. 向之中. 針灸經穴與原氣.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8, 46-47, 68-77.
 18. 이정훈, 윤중화. 足臂十一脈灸經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98;15(1): 181-200.
 19. 이정훈, 윤중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

陽十一脈灸經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 1999:16(2): 139-179.